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제 6 월이 되어 수목이 푸르러지고 울창하게 되었겠군요? 이곳은 이제 우기가 지나, 그래도 좀 선선해 지는, 소위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에는 비가 유달리 많이 와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기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몇년전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어느날 목욕을 할려고 물을 받았는데 무슨 빨간 실들이 물속에 있어서 뭔가 자세히 보니 실 지렁이였다는 편지를 읽고 기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로 지내는 곳에도 목욕을 할 때는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물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빨간 실들이 내 손에 잡히고, 그리고 물에 있어서 뭔가 자세히 봤더니 실지렁이였습니다. 유난히 징그러운 것을 못견디는 나(정미라 선교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물은 안 쓸 수가 없어서, 물을 체로 거른 다음 실지렁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썼습니다. 우기때라 더욱 심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사역과 또 안식년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 사역을 할 때는 오래 이곳에 있었음에도 현지인들과 일을 직접 부딪치며 하지 않았기에 잘 몰랐던것을 이제 새로운 사역을 현지인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알아 가고 있습니다. 새 사역지인 싱기다 지역에 있는 정부 땅을 받아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선교사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곳 탄자니아에는 탄자니아한인선교사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일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개최하여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라 선교사가 지난 일 년간 임원 직책을 맡아 선교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교사회가 추진해 왔던 비정부기구 (NGO) 등록과 면세 자격 확보 등을 위해 애를 쓰고, 또 수련회 행사를 추진하는 일들을 맡아 무척 바빴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일들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선뜻 나서 하기가 쉽지않았지만,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을 도울수 있는 일이었기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미라 선교사 비자 신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짧게 설명하자면, 녁달전에 체류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잘못되어 정미라 선교사가 불법 체류하는 것이 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야 하고, 이번 안식년때 나갈때도 문제이고 들어올 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꽤나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에 찾아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상황 설명도 해봤고, 사정도 해봤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산넘어 산을 힘들게 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이일까지 생기자, 스트레스로 정미라선교사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얼굴 신경은 심하게 아프고 소화가 안되어 밥을 못먹고 피곤증으로 낮에도 누울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젠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 가슴 깊은곳에서 서서히 올라 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에 게을러져 가고 불평이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 하시는 것같은 불안감 속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못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민국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민국은 정부 공공 기관이라 입구의 security 탐지기만 거치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입구에서 딱 저희들만 못들어가게 하며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왜 왔느냐 와 같은 황당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곳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다들 들어가는데 우리를 잡고 못들어가게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입구에서 우리를 막았던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찾아 가고자 했던, 이민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고, 우리의 체류 신청 건을 담당하고 있는이민국 직원을 만나러 우리와 함께 2 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 때가 오후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담당 직원이 이미 퇴근해서 못만나니 다시 내일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퇴근했다던 그 담당 직원이 갑자기 우리가 있는 오피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강하게 내 비자를 내줄 수 없다고 하던 그 담당 직원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두말 않고 비자를 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얼키고 설켜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비자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우리가 입구에서 그렇게 설명할수없이 황당하게 잡혀 있었던가가 생각나며,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온 몸과 영으로 깊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리의 생선도 못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생선을 잡은 것처럼 '나도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6 월 22 일부터 1 년간의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먼저 한국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옛날의 은행 계좌를 정리한 뒤, 8 월 중순 정도에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가면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성구선교사의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신청을 하고, 정미라선교사는 얼굴신경 테라피 및 건강 정밀 검사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의 교회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 안식년에는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제 2 기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하며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동역자들께서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안식년과 제 2 기 사역 준비 과정, 그리고 새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안식년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 제 2 기 사역에 함께 동역할수 있는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4. 이번 선교사 수련회 (6 월 16-19) 에서 지치고 힘든 선교사들이 영육간에 새로와 지도록.

### 후원방법

한국: 그동안 대학구좌를 썼었는데 이번 한국방문때 구좌가 바뀝니다. 구좌가 바뀌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벨엘교회 (1155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B7)

탄자니아 선교사 이성구/정미라 선교사앞